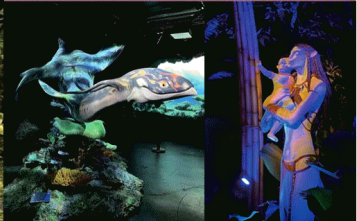




싱가포르 '아바타: 더 익스피리언스' 가보니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 마련된 '아바타: 더 익스피리언스'. '아바타: 물의 길'에서 처음 공개되는 볼론, 양치기 가자

## 나미족처럼.. '판도라 행성' 황홀한 교감

또 '아바타: 물의 길'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볼론도 만나볼 수 있다. 귀여운 고래와 흡사한 볼론은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의 아들 로아크와 교감을 나눌 예정이다. 볼론은 아르칸과 다른 매체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기념품 매장에는 다양한 아바타 굿즈가 소비 욕구를 자극한다. 나미족 인형 나미족의 꼬리 모양 인형과 아바타 다이어리, 티셔츠, 머피피, 열쇠고리 등이 마련됐다.

한편 '아바타: 물의 길'은 가족을 이룬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가 이룬 가족이 겪게 되는 무자비한 위협과 살아남기 위해 떠나야 하는 긴 여정과 전투, 그리고 견뎌내야 할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다.

조 셀다나, 샘 워싱턴, 시고니 워버, 우나 채플린, 지오바니 리비치, 스티븐 랭, 케이트 윈슬렛, 클리프 커티스, 조엘 무어, CCH 파운드, 맷 제랄드 등이 출연했다.

오는 14일 전 세계 최초 한국 개봉한다.

양치기 가자 jwon4@sporbiz.co.kr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명작 '아바타'가 13년 만에 후속작 '아바타: 물의 길'(아바타 2)로 관객을 찾는다. 아바타의 판도라 행성을 체험할 수 있는 '아바타: 더 익스피리언스'는 '아바타2'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는 공간이다.

'아바타: 더 익스피리언스'는 오는 10일까지 싱가포르의 자연공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에서 운영된다. 지난 10월 28일부터 싱가포르 현지인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게 마련됐다.

이 공간은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세 번째 온실인 '클라우드 포레스트(Cloud Forest)' 내에 마련됐다. 7층 높이의 건물에 5개의 체험존으로 구성됐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100만제곱미터(m2)에 이르는 규모로, 약 7만2000그루 이상의 식물이 있다.

'아바타: 더 익스피리언스'는 아바타 배경이 되는 판도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입구부터 황홀하다. 마치 판도라에 온 듯 웅장한 나무들과 함께 '아바타'의 주요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제이크 설리가 된 듯한 간접 체험도 가능하다. 'Avatarize Yourself'에서는 나미족이 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관광객의 모습을 카메라로 전신 스캔한 뒤 나미족으로 구현한다.

가장 큰 오락적인 요소를 지닌 공간은 '크리스탈 마운틴'이다. '크리스탈 마운틴'에서는 직접 이크란이 돼 장애물을 피해 하늘을 활공하며 날개짓을 할 수 있다. 또 그림자를 통해 '나미족'과 같은 꼬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아바타'에서 위용을 뽐낸 이크란 '마운틴 뱀' 역시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이크 설리와 교감한 생물로 아바타를 대표하는 크리치다. 마운틴 뱀시 조형물은 시시각각 움직이며 큰 날개짓과 소리로 카리스마를 과시한다.



영화 '젠틀맨' 주지훈 박성웅 각사 제공

## "비슷한 악역?... 이번엔 고급 빌런"

영화 '젠틀맨' 박성웅·주지훈

"처음에는 '젠틀맨' 대본을 받고 너무 그런 (악당)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아 거절했어요. 그런데 주지훈 씨와 '런트' 촬영장에서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우리 둘이 정식으로 맞닥뜨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특이된 것 같습니다."

배우 박성웅은 1일 서울 메가박스 성수에서 열린 영화 '젠틀맨' 제작보고회에서 자신은 박성웅 "고사 끝에 주지훈 만나 출연 결정" 일말 겨냥 범죄오락 영화... "갈끔한 작품" 고 생각한

주지훈은 "범죄 오락물이라 범죄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도 그게 명징하게 일하고 쉽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빌런인 권도훈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화려한 별장에 공을 들였다고 언급했다.

박성웅은 "초반에 별장 박제품 사이를 지나가는 씬이 있다"며 "이 장소 하나를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권도훈이 30%는 완성된 느낌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주지훈은 영화에 감초처럼 등장하는 강아지 원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그는 "거짓말 같지만 원은 '천천히, 중간 속도로', 뛰어가 줘라고 말하면 다 한다"며 "동물과 함께하는 촬영이라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았는데 지친구 덕에 빠르게 귀가할 수 있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연립뉴스

**교양으로 꼭 알아야 할 처음 읽는 세계사 시리즈**

# "불확실성의 시대,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 미시적 관점에 바라본 재미있고 생생한 세계 역사와 문화 -



화폐가 세상을 바꾼 결정적 순간들



식탁 위에 놓인 인류 역사 이야기



한 잔 술에 담긴 인류 역사 이야기

**교보문고 역사 분야 베스트셀러**

- 소주가 연금술과 관련이 있다고?
- 콜럼버스의 교환이 불러온 식문화의 변화는?
- 동전과 지폐는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 초강대국 미국이 금융 위기의 발상지가 된 까닭은?

미야자키 마사카츠 지음 | 각 권 16,000원 탐나는책